LS증권

유가·금리 하락에 나흘만에 3대지수 반등, 기술주 강세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 hyseong@ls-sec.co.kr

유가·금리 하락 영향 투자심리 개선, 기술주 호재에 강세

- 미 증시는 DOW +0.61%, S&P500 +1.14%, NASDAQ +1.69% 상승. 기술주, 에너지, 소재 강세, 통신서비스 약세
-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+3.1%. 인텔 CEO 가 AI 구축과 반도체시장에서 여전한 강한 수요와 공급부족에 따른 5~7 배의 메모리 가격 상승이 나타났음을 언급. 이를 뒷받침하듯 AMD, 네비우스그룹 등 가격 인상발표 이어지며 AI 속도조절 관련 공포심리 개선
- 시타델증권은 9 월 추가 약세는 매수의 기회라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9 월말 저점에서 10 월을 지나며 역사적 평균 +5.6% 지수 상승이 이뤄졌다고 언급

원유 공급우려 완화 및 중동 대화 기대감에 하락

- 국제유가 하락 WTI $101.9(-0.5%), Brent $104.8(-1.0%). 사우디 우회수송로 확보 등으로 공급차질 우려 완화되는 가운데, 사우디 측이 오만을 통해 후티 반군에 2 주 휴전을 제안했다는 보도
- 또한 로이터는 사우디 요청에 의해 중국이 이란에 후티 반군을 제지해달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. 다만 이란 측은 역내 안정과 평화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을 끝내는데 달렸다는 입장
- 한편,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 일 뉴욕에서 걸트 6 개국과 회동 앞두고 이란 정권을 전멸할 공격 여부에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고 언급

유가 하락과 BOE 결과에 국채금리 하락, 다만 추가 인상 가능성은 ↑

- 국채금리 하락 10Y 4.947%(-5.6bp) 2Y 4.690%(-3.7bp) 유가 하락 및 BOE 금리동결·QT 개편안 발표에 금리 하락
- 애틀랜타 연은 3 분기 미 성장률전망치 5.1%로 상향.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9.6 만건 전주·컨센 하회, 2 개월만에 최저치
- 9 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37.8 전월비 하락·컨센 상회. 다만 세부항목 내 가격지수 40.9→48.6 급등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NBIS	네비우스	+4.1%	10월 1일부로 엔비디아 온디맨드 GPU(H100 +17%, H200 +20%, B200 +19%, B300 +21%) 및 AMD CPU/메모리 요율 약 20% 인상한다 발표하며 AI의 폭발적인 수요 재확인. 또한 AMD(+6.4%)는 TSMC(+3.0%) 웨이퍼단가 인상에 대응해 전제품군 판가 10% 인상 예정
NVDA	엔비디아	+2.5%	젠슨 황 CEO가 내년 반도체 칩 판매량이 올해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며 강세
GNRC	제네락 홀딩스	+18.3%	아마존(+2.1%)과 대규모 데이터센터용 비상발전기 공급 계약 체결 공시에 주가 강세. 초기 물량은 '27~'28년 $2.4B 규모. 최대 $8B 구매액에 연동해 주당 $200.9266에 보통주 169.4만 주를 매입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부여
OKLO	오클로	+11.3%	미 하원 전기요금납부자보호법 통과, 데이터센터 자체전력수요 확대 기대에 원전·SMR 강세. 엑스에너지(+12.1%), 뉴스케일파워(+8.9%) 등 주가 상승
CRWV	코어위브	-4.2%	$3B 규모 전환사채 발행 통한 자금 조달 계획 발표 여파로 주가 하락. 최대 3,500만주 주식 발행·매각 프로그램 시행
LCID	루시드	+5.9%	알릭스파트너스와의 구조조정 작업 완료 소식 및 유럽 내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을 위한 볼트(Bolt)와의 파트너십 발표에 힘입어 주가 상승